

# 반려동물 해수욕장 조성에 커지는 논란

### 화순금모래해변 공유수면 중 90m 콘크리트로 매립 서귀포시, 마을회 건의에 따라 특화해수욕장 추진 환경단체·정당 반발... 시 “수로 정비·사업 재검토”

지난 16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금 모래해수욕장. 용천수가 흐르는 수로 바닥을 들여다보니 일부 구간이 콘크리트로 길게 매워져 있었다. 콘크리트 위로 물은 흐르지만 부드러운 진흙이 있던 습지 바닥은 원형을 잃었다. 이 곳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서귀포시가 해수욕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은 사업비 2억원을 들여 화순금모래해수욕장 인근 공유수면 350m 구간에 반려동물 물놀이장과 놀이터, 어린이 물놀이장 등을 갖춘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용천수가 지나는 구간 350m 중 가운데 90m 구간의 바닥면을 콘크리트로 매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 환경단체와 정당이 “연안습지를 훼손한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져갔다.

17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 구간은 용천수가 백사장을 거쳐 그대로 바다로 흘러가 매년 지형 변화 문제가 나타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정비사업으로 조성한 인공수로다. 그러나 매년 퇴적되는 토사로 인해 갈대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해수욕장 개장 전 마을청년회에서 준설과 갈대 제거 작업을 반복해왔고 이를 개선하고 침체된 해수욕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회 건의에 따라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성명을 통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공사 구간은 화순리 해안가 일대의 여러 용천수에서 흘러온 용출수가 소하천을 형성해 바다로 흘러가는 곳”이라며 “이 곳은 제주도가 도내 연안습지 21곳 중 한 곳으로 지정 관리하는 연안습지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이 곳에선 은어, 뱀장어 등 15종·약 770마리의 담수 어류가 확인된 곳이며 현장 확인 결과 소하천 매립이 끝나는 지점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기수갈고동’ 수식개체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제주녹색당·정의당 제주도당도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는 기존 용천수 인공 수로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보호종 서식이 추정되는 하류 약 130m 구간과 상류 130m



용천수를 빼고 콘크리트로 매운 바닥(사진 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과 16일 공사를 위해 막았던 물길을 다시 열면서 콘크리트로 매운 바닥 위로 용천수가 흐르는 모습. 양유리기자

구간은 원형 상태로 보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논란이 커지자 서귀포시는 일단 반려동물 물놀이장 조성 계획을 보류하고 사업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시는 마을 주민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절충해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백소정·양유리기자

# 제주해경청, 김해철 총경 직무대리 체제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박상춘 제주청장 대기 발령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게 돼 대기 발령됐다. 이에 따라 제주해경청은 당분간 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17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박상춘 청장(경무관)에 대한 본청의 대기발령 조치로 지난 6일부터 김해철 제주해경청 기획운영과장(총경)이 직무대리를 맡았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고위공직자 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개시 통보에 따라 지난 5일자로 박 청장과 박홍식 강릉해양경찰서장을 대기발령했다.

박 전 청장과 박 전 서장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수사결과 번복 논란이 일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박 청장은 당시 인천해경서장이었다.

해경 관계자는 “청장 대기발령으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며 “해상주권 수호와 제주 해상치안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장 직무대리를 맡은 김해철 총경은 2000년 경찰간부 후보생(48기)으로 해양경찰에 입문해 해양경찰청 상황센터장, 통영해경서장, 해양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교과과장,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운영지원과장, 목포해경서장, 제주해경청 기획운영과장 등을 지냈다. 백소정기자

# 이호해변서 수상휠체어 타고 물놀이

### 제주시 특수 휠체어·구멍조끼 2세트 구입... 24일 첫 선 장애인 이동 편의 등 제공... 시범운영후 확대 도입 검토

모래해변 이동에 제약을 받던 장애인들도 제주 이호해수욕장에선 특수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 물놀이가 지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제주시는 장애인의 해수욕장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물놀이 지원을 위해 이호해수욕장에 수상휠체어 등 맞춤형 편의시설을 전격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백사장의 모래 지형상 휠체어 이동이 불가능해 장애인들이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시는 사업비 1120만원을 투입해 물에 뜨는 특수 수상휠체어 2대와 안전을 위한 구멍조끼 2세트를 구입했다. 시범 운영에 앞서 오는 23일 오전 10시 현장에서 수상휠체어 공개 시연이 이뤄진다. 김완근 제주시장을 비롯해 관계 부서 공무원,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장비의 안전성과 이동 동선을 직접 점검한다.

해당 장비는 이호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이달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시범 운영된다. 종합상황실에 대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 실적과 사용자 만족도, 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제주시 내 다른 해수욕장으로 확대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당 장비는 해외 수입 장비의 한계를 보완한 국내 체형 기반 설계를 특허 등록·제작한 수상휠체어로 중증·경증 장애인이나 최대 120kg까지 이용할 수 있다. 백금기기자



# 성산지역 어제 100mm 넘는 폭우 쏟아져

### 도로 침수로 소방 출동

제주지역에 내린 폭우로 도로침수 피해가 발생해 소방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1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도내 일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던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도로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동력펌프를 이용해 도로 위 물을 빼내는 등 배수작업을 진행했다. >>사진



한편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는 17일 하루에만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양유리기자 glassy38@halla.com

# 초등생 위한 주중·주말 프로그램 참가 모집

### 제주도서관 '놀래올래 온동네 키움 프로그램'

제주도서관이 '2026 놀래올래 상반기 온동네 키움 프로그램 3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방과후와 주말 시간을 활용 제공하는 교육·체험 활동으로, 저학년·고학년으로 나눠 진행된다. 프로그램 별 모집 대상은 12명 내외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는 초등 1~3학년생을 위한 ▷수학 교구를 통한 원리 탐구와 사고력 게임 ▷클래식 음악 감상과 신체·악기 표현 활동 ▷창의 미술 활동이

진행된다. 토·일요일, 주말에는 초등 저학년을 위한 그림책 활동, 과학 원리 탐구 등에 더해 4~6학년생을 위한 역사 탐구, 보드게임 놀이가 예정돼 있다. 운영 기간은 7월 1일부터 26일까지다.

참가 신청은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제주교육청 공공도서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프로그램별 대상 학년과 운영 시간이 달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선착순 접수. 김지은기자

## 사려니숲길 탐방안내

**코스 및 소요시간**

- 1. 사려니숲길 붉은오름 입구(남조로99번도로)에서 출발할 경우**
  - 사려니오름: 편도 14km 3~4시간 (행사기간에만 가능)
  - 비자림로: 편도 10km 2~3시간
  - 물차오름 입구: 편도 5.2km 2시간 내외
  - 시험림길(이승익탐방휴게소): 편도 17.2km 5~6시간 (5월 16일~10월 31일 까지 개방)
- 2. 비자림로(112번도로) 사려니숲길 입구에서 출발할 경우**
  - 사려니오름: 편도 17km 5~6시간 (행사기간에만 가능)
  - 남조로: 편도 10km 2~3시간
  - 물차오름 입구: 편도 4.8km 2시간 내외
  - 시험림길(이승익탐방휴게소): 편도 17.6km 5~6시간 (5월 16일~10월 31일 까지 개방)

**행사기간 중 운영안내**

- 코스운영시간: 08:00~17:00
- 물차오름 탐방: 10:00~12:30 행사기간 한시적 개방, 사전예약자에 한해 입장(30분 간격으로 25명씩 제한)
- 오후 1시부터 시험림길 삼거리에서 시험림길 방향 진입 통제
- 오후 2시부터 사려니숲 삼거리에서 사려니오름 방향 진입 통제
- ※ 모든 코스는 기상 악화시 탐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행사기간 중 숲체험 프로그램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	시간	내용
6월 19일(금)	10:00~10:20 10:30~11:00 11:00~11:20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 개막식 사우스카니발
6월 20일(토)	13:00~13:30 13:30~14:00	클래지팝콘 워터
6월 21일(일)	13:00~13:30 13:30~14:00 14:00~14:30	타지 디어 루디의 아트&뮤직

**사려니숲 생태 춤무상**

일시 6월 19일(금) 오후 2시 30분, 오후 3시(2회)  
6월 20일(토) 오전 10시, 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 30분, 오후 3시(4회)

장소 사려니숲 열린무대(공연장) 일대  
강사 현경희, 김병진

**사려니숲 생태관방**

내용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체험(나무조각 공촌 만들기)  
일시 6월 19일(금) ~ 6월 23일(화) 오전 10시~오후 2시  
장소 사려니숲 열린무대(공연장) 옆 행사장  
※ 재료 소진 시 종료

**사려니숲 치유 프로그램**

내용 사려니숲에서 힐링을(차담, 명상, 시낭송)  
일시 6월 19일(금) ~ 6월 23일(화)  
오전9시30분, 오전10시, 오전11시, 오후1시  
장소 사려니숲 붉은오름 입구에서 우측 무장에 나눔길

## 2026. 6. 19(금) - 6. 23(화)

18th Saryeoni Forest Eco-healing Experience

찾아오시는 길 사려니숲길 붉은오름 입구(표선면 가사리 산158-4)  
대중교통 문의 제주버스정보시스템 창조(bus.jeu.go.kr) 및 제주 120 민원콜센터☎064-120 문의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 주관 | 산림청제주지청 |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청제주지청 | 후원 | 산림청제주지청 |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청제주지청

## 사려니 숲 속 사진관

내용 사려니숲에서 직접 찍은 사진 위에 나만의 감성 어린 한 줄 시를 더해보는 디카시(사진+시) 체험  
장소 사려니숲 열린무대(공연장) 주변

## 미니 사진 클래스

내용 나무, 이끼, 곤충 등 자연 요소를 활용한 포토존 구성 및 사진 구도, 스토리텔링 등 실용적인 촬영 기법 강의 진행  
장소 사려니숲 열린무대(공연장) 주변

## 소원리본 달기

기간 6월 19일(금) ~ 6월 23일(화) 5일간  
장소 사려니숲 열린무대(공연장) 옆 행사 본부서

## 우드키링만들기

내용 나무 키링에 원하는 색상을 칠해 나만의 기념품을 완성하는 컬러링 체험  
일시 6월 19일(금)~6월 23일(화) 오전 10시~오후 3시  
장소 사려니숲 열린무대(공연장) 주변  
※ 재료 소진 시 종료

## '1년 후 나에게 쓰는 메시지' 이벤트

기간 6월 19일(금) ~ 23일(화), 5일간  
장소 사려니숲 열린무대(공연장) 옆 행사 본부서  
참여방법 1년 후 나에게 쓰는 메시지를 병명록에 작성 시 기념품 증정  
※ 기념품 소진 시 해당 이벤트는 종료

## 사려니숲 해설사 동행 탐방 프로그램

장소 비자림로 입구 ~ 세왓내 ~ 팔배나무 ~ 천마천  
접수 방법 현정접수(비자림로 입구 해설사부스)

일차	회차	시간
6. 19(금)	1	10:00
6. 23(화)	2	11:00
	3	13:00
	4	14:00

2026 제주산림문화체험 사려니숲 에코힐링체험기회를 축하합니다.

**위안장** 위안장 내시경내과 의원  
TEL. 721-3117 FAX. 721-7641  
원장 기만덕 내과전문의  
제주시 노형동 노형로 407 노형타워 3층 302호